



황규승 회장

지난 7월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병주, 신원식 군 출신 국회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와 한국보훈학회가 주관한 고엽제피해 보상과 후유(의)증 미망인 승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?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.

그러나 8월 29일 국무회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고엽제와 월남전 참전자들의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형상이었다. 즉, 2024년 참전자 명예수당이 3만원만 인상되어 윤대통령 임기내 70만원 약속이 매우 요원한 느낌이었고 전상이 7급자에 대한 인상이 7%에 그친다는 뉴스에는

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. 물론 국가 경제 쓰임새가 대통령이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에는 이론이 없지만 기획예산처의 예산 편성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해 소홀했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미흡했다는 결론을 가질밖에 없어 유감이었다. 수혜 대상자들은 오직 자신의 처지를 국가와 국민들에게 잘 이해시켜 국가가 스스로 더 예우하게 해야 할 것이다. 따라서 이번 고엽제 학술세미나는 당장 무엇을 성취한다는 기대 보다는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국가를 이론적으로 설득시키는 첫발로 삼아야 할 것이다.

【신재은 기자】



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제1회 고엽제 등급문제 국회 학술세미나

### 고엽제전우들의 바람

- 1, 월남전쟁에서 다같은 조건에서 고엽제 피폭됐는데 누구는 후유증이고 누구는 후유(의)증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차별화하는 것을 철폐하라.
- 2, 누구는 유족에게 승계되고 누구는 안되는 불공평한 정책을 철폐하라.
- 3, 겉만 멀쩡했지 오장육부가 심하게 타들어 가는데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는 가족과 전우들의 실상을 국민과 지도자들이 십분 이해하여 보상의 범위를 넓혀라

이것이 고엽제 전우들의 공통된 요망사항이다.

【신재은 기자】